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지역성 변화에 관한 세계체제론적 분석

— 산업을 중심으로 —

이재하* · 김석주**

World-System Analysis on the Changing Regionality of th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in China: With focusing on industrial activities

Lee Jaeha* · Jin Shizhu**

요약: 본 연구는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 접근방법에 의해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세계경제체제 속에서의 지역성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3시기구분에 따라 산업 특히 농업과 공업활동에서 노동의 공간분업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하였다. 일제시기(1909~1949)에 연변은 일제에 수탈되는 전형적인 주변적 농업 및 공업지역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중국이 세계체제로부터 이탈한 사회주의시기(1949~1978)에는 연변의 농업과 공업은 사회주의적 생산지역으로 변모된다. 개혁개방이후 시기(1978~현재)에 연변은 중국정부의 변경지역에 대한 늦은 개방조치(1992년)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연해지역은 세계경제 속에서 반주변으로 발전되었지만, 아직도 주변지역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연변이 조선족자치주로서 존속·발전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 속에서의 지위 또는 역할을 조속히 반주변지역으로 향상시켜 조선족의 유출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요어: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 연변조선족자치주, 노동의 공간분업, 주변지역, 반주변지역

Abstract: To understand the changing regionality of th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YKAP) in China within the world-economy, this paper examined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in agriculture and industry with three divisions of period through the regional geography of world-system.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1909~1949), the YKAP was made into a typical peripheral agricultural and industrial region which was exploited by the Japanese empire. In the socialist period(1949~1978) which China separated from the world-system, the YKAP was transformed into a socialistic agricultural and industrial region. In the reform and open-door period(1978~present), the YKAP still plays a role as a peripheral region due to the late open-door policy in 1992 of Chinese government on the border land and else, while most littoral areas of China are developed into a semi-peripheral region. Therefore if the YKAP continues to exist in the future, it is a critical matter to raise the position of the YKAP within the world-economy into a semi-periphery as soon as possible to increase the ratio of Korean ethnic in the YKAP.

Key Words: the regional geography of world-system, th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spatial division of labor, peripheral region, semi-peripheral region

1. 서론

1) 연구목적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 이하 ‘연변자치주’ 또는 ‘연변지역’)는 중국 길림성(吉林省) 동부에 있는 중국내 소수민족 조선족을 위한 특별행정구역으로서, 흑룡강성과 러시아의 연해주 그리고 북한의 함경북도와 자강도를 접하며 위치하고 있다. 연변자치주는 길림성 당국이 1952년 9월에 예로부터 한국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간도(間道)

지역의 북부 일대에 ‘연변조선족 자치구’를 설립하고, 1955년 12월에 ‘자치주’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변자치주의 면적은 42,700km²이고, 행정구역은 연길(延吉)·도문(圖們)·돈화(敦化)·화룡(和龍)·용정(龍井)·훈춘(渾春)의 6개 시(市)와 왕청(汪淸)·안도(安圖)의 2개 현(縣)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2006년 말 현재 약 217.8만 명이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연변자치주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연변에서 중국어로 발행되는 ‘연변천보(延邊晨報, 2007.3.10일자)’는 길림성 당

*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leejha@knu.ac.kr)

** 연변대학교 지리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Yanbian University, China)(jinsz@hanmail.net)

국이 최근에 연변자치주의 조선족 인구비율이 급속히 낮아지자 앞으로 5년 이내에 연변자치주를 해체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다. 54년간 존속되어 온 연변자치주를 해체하고, 옌지(延吉)-룡징(龍井)-투먼(圖們)의 3시를 옌룽투(延龍圖)시로 통합하는 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은 수년 내에 연변자치주의 조선족 비율이 소수민족 자치주 설치요건인 '소수민족 비율이 최소한 30%이상 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라고 한다.

연변자치주가 처음 설립되던 1952년에는 조선족의 인구비율이 주 전체 인구(854,431명)의 62% (529,801명)를 점하고 있었다. 이후 중국정부가 지속적으로 시행한 소수민족자치지구 내의 한족(漢族) 인구비율 증가정책으로 인해, 연변자치주에서도 조선족 비율이 1980년에 40.3%, 1990년에 39.5% (821,479명)로 낮아졌다. 동 기간(1952~1990) 동안에 조선족 인구비율이 낮아지긴 했어도 인구의 절대수는 연평균 1.5%씩 꾸준히 증가해 온 셈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연변자치주의 조선족 인구는 예전과 다르게 감소의 폭이 크게 나타나 1996년부터는 절대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비율도 2000년과 2005년 말에 각각 38%와 33%로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중국은 1978년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되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연평균 9%이상의 고도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연변자치주는 1992년의 한·중수교로 이후 한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중국내 어떤 지역보다도 개혁개방의 혜택을 많이 수혜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변자치주는 최근에 고향을 떠나는 조선족의 과다 유출로 인해 해체 위기에 놓여 있다. 연변자치주의 이러한 지역 변화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연변자치주의 이와 같은 지역변화는 중국의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의 편입 이후 현저히 나타난 현상이므로 세계체제론 관점에서 가장 잘 분석·고찰될 수 있다. 지역현상을 세계체제의 산물로 인식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세계체제론적 관점에서 지역연구를 시도하였다(Taylor, 1988; 1991a; 1991b; Hoekveld, 1990; Terlouw, 1990; Thrift, 1990;

Bradshaw, 1990). 이 중 Taylor의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regional geography of world-systems)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는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world-system)과 그것의 일반 메커니즘(mechanism) 속에 내재된 시공간 개념에 유의하여 지역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현실 세계에는 세계경제(world-economy)라는 단일의 세계체제(world-system)에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일반 메커니즘(즉, 중심(core), 반주변(semi-periphery), 주변(periphery)으로 나뉘지며 작동하는 노동의 공간분업체제)에 의해 상이한 공간분업 또는 발전지역(중심, 반주변, 주변 지역)이 형성됨으로 지역을 세계(경제)체제의 역사적 맥락에서 접근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이제하, 1997, 120-126 참조).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연변자치주의 세계체제 속에서의 지역성을 이해하고, 아울러 해체위기에 놓인 연변지역의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찾기 위해, 연변지역이 최초로 세계체제에 편입된 이래 오늘날 까지 세계체제 속에서 노동의 공간분업적 지역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산업(특히 농업과 광공업)활동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서의 지역 개념은 세계경제를 중심, 주변, 반주변으로 재생산하는 일반 메커니즘에 의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생성되고 변화하는 역사지역(historical regions)을 의미하는 만큼 세계체제의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연변지역의 세계체제로의 편입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서는 국가내 지역은 기본적으로 소속 국가의 이데올로기(ideology)에 의해 세계체제로의 편입여부가 결정된다고 본다. 연변지역의 세계체제로의 편입과정도 중국의 그것을 통해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은 1842년 영국과 남경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일부 지역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역사적으로 처음 편입하게 된다. 하지만 연변지역은 일본과 체결한 간도협약(1909년)으로 강제로 세계체제에 편입된다. 일제의

폐망(1945년)이후 중국 공산당이 1949년에 사회주의 국가(중화인민공화국)를 설립함으로써 연변지역도 세계체제로부터 이탈하게 된다. 그리고 1978년 중국정부가 단행한 개혁개방정책으로 다시 세계체제에 편입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연변자치주의 지역성 고찰은 일제시기(1909~1949), 사회주의시기(1949~1978), 개혁개방 이후시기(1978~현재)로 나누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서 중심, 반주변, 주변이라는 노동의 공간분업 또는 상이한 발전지역의 구분은 경제적 측면(특히 산업생산 활동)에서 노동력의 통제양식, 생산품의 다양성, 기술수준 등 3가지 생산 프로세스(process)에서의 위계적 차이에 근거한다. 중심지역에서는 자유로운 노동시장과 노동활동에서 비롯된 고임금 노동력에 의해 기술집약적인 다양한 상품생산이 이루어지고, 주변 지역에서는 억압적 노동통제로 인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나 상품생산이 주로 행해지며, 반주변지역은 중심과 주변의 중간적 분업 활동에 해당하는 혼합적 상품생산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체제 속에서의 이러한 위계적인 3지역 간에는 부등가 교환에 의한 상호의존적인 교역으로 상위(중심)지역이 하위(주변, 반주변)지역을 지배·착취하는 종속관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중심, 반주변, 주변지역 간의 구분기준과 종속관계에 기초하여 연변자치주가 앞에서 언급한 3시기별로 세계체제 속에서 어떤 분업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인가를 농업과 광공업 중심으로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체제 속에 편입된 지역은 그 곳의 농업에서부터 서비스업에 이르는 모든 산업 부문에서 유사한 노동의 공간분업 활동이 전개된다. 하지만 3시기에 걸쳐서 분업 관련 자료의 분석이 가능한 산업은 농업과 공업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사회주의국가(중국)에서는 제조업 외에 삼림벌채 및 목재가공업, 광산물 채굴업도 공업으로 간주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의 편의상 그대로 따라 하였다.

2. 일제시기 연변자치주의 지역성

1) 세계체제로의 편입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은 18세기부터 본격화된 영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중심(core)국가들의 제국주의 정책에 의해 강제적으로 세계경제체제에 편입하게 된다. 중국도 영국의 제국주의 팽창에 의해 발발한 그들과의 아편전쟁(1842년)에서 패배와 그로 인해 체결된 '남경조약'(1842년)으로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방함으로써 세계체제에 편입된다. 이후 중국의 다른 연안지역과 내륙지역들도 순차적으로 세계체제에 편입하게 된다.

오늘날 연변자치주는 과거에 간도(間道) 땅의 북(北)간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간도는 청나라에서도 이 지역 일대를 봉금구(封禁區)로 지정·관리함에 따라 오래 동안 황무지나 다름없었다가 19세기 후반부터 조선인의 이주로 본격 개발되었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 지역이 세계체제에 편입하게 된 것은 일제의 제국주의 때문이다. 일제는 1894년의 청일전쟁과 1904년의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조선을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 1905년 11월에 조선과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나아가 당시 청과 조선 사이의 완충 지대였던 간도지역을 그들의 만주로의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 지역을 중국(청)의 영토로 인정해주고, 그 대가로 그들의 세력 확장을 담보하는 간도협약(1909)을 체결하게 된다.

일제는 '간도협약' 2조에서 청에 대해 연변지역의 용정촌, 국자가(局子街), 두도구(頭道溝), 백초구(百草溝) 등을 상부지(商埠地)로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제가 연변지역을 그들의 경제권에 편입하려 한 것은, 명분은 조선인의 집단 이주지역 보호를 내세웠다고 하지만, 실은 이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일본의 대만주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는데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과 각종 천연자원의 공급지이자 상품수출시장으로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변지역은 1909년부터 일제에 의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하게 된 것이다.

2) 산업의 지역성

(1) 농업의 주변지역화

연변지역이 일본과의 간도협약에 의해 세계체제에 편입되기 시작하지만 농업활동에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메커니즘에 따라 분업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1910년대 중반이후부터이다.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양곡의 국제가격이 급등하게 되자 일본은 농경지 확보에 적극 뛰어들게 되고, 연변지역의 황무지 개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일제는 1915년에 만주를 그들의 수탈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중화민국의 북양정부(北洋政府)를 압박하여 ‘만몽협정(滿蒙協定)’을 체결한다. 만몽조약의 상조(商租)규정에 따라 만주에서 일제의 농경지 취득이 가능해지자 일제는 동아척식주식회사, 동아권업주식회사, 만철공사와 같은 정책회사들을 내세워 중국인의 토지를 조차 명의로 소유권을 확대해 가는 한편, 조선인들을 이용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게 함으로써 연변지역의 경작지 면적을 크게 확장한다(표 1 참조). 이후 일제는 만주국(1932년)을 세움으로써 이 지역의 농경지에 대한 수탈을 더욱 가속화하고, 농작물 재배도 그들의 수요에 따라 통제하는 정책을 단행한다. 즉, 일제는 농업을 통제하기 위하여 1933년에 만주국의 ‘경제건설요강’, 1937년에 ‘산업개발 제1차5개년 계획’, 1942년에 ‘산업개발 제2차5개년 계획’등을 각각 수립하고, 이것에 따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농작물을 생산하도록 강요하였다.

만주국의 ‘경제건설요강’에서 연변지역의 농작물

재배와 수급계획에 따르면, 식량작물로는 벼, 조, 콩, 옥수수, 수수, 보리, 감자를, 특용작물로는 아마와 담배를 주 재배작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벼는 일본인의 식량으로 재배·공급되고, 콩은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는 것 외에 일본의 사료와 공업원료로, 조·수수·옥수수는 서민들의 식량으로, 감자와 보리는 연변지역 농민들의 주식으로, 아마와 담배는 공업원료로서 국내외에 공급한다는 것이다(박경수, 1987, 105-107).

이와 같은 연변지역에 대한 일제의 농업수탈정책은 주요 농작물의 재배면적 변화(표 1 참조)에서 잘 확인되고 있다. 1917년과 1943년 사이에 주요 농작물의 재배 면적은 전체 경작지 면적의 확대에 따라 모두 증가하지만 특히 많이 증가한 것은 일본과 식민지 조선으로 많이 수출되던 쌀과 콩으로서(延邊歷史研究所 編, 1986, 207), 각각 2.9배와 2.5배씩 증가하였다. 아마와 담배는 본래 연변의 경제작물이 아니었지만 일제가 공업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기 시작함으로써 출현하였다. 당시 저가에 조선으로 많이 수출되던 조(고승제, 1973, 40-41)는 재배 면적의 비중은 많이 낮아졌지만 절대면적은 오히려 두 배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주로 연변지역에서 소비되는 보리, 감자, 수수 등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거나 큰 변화가 없었다.

요컨대 일제시기 연변지역의 농업은 토지의 대부분이 일제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고, 농작물의 종류와 재배면적도 당시 세계체제의 반주변적 지위

표 1. 연변지역 주요 농작물의 재배면적 변화

(단위: 정보 %)

연도	재배면적	콩	조	옥수수	감자	벼	보리	수수	아마	담배	기타
1917	60,898	6,606	24,466	4,193	3,338	1,676	6,068	2603	-	-	11,948
	(100.0)	(10.8)	(40.2)	(6.9)	(5.5)	(2.8)	(12.4)	(4.3)	-	-	(19.6)
1925	190,029	44,098	59,288	18,407	-	7,601	12,191	13,302	-	-	35,142
	(100.0)	(23.2)	(31.2)	(9.7)	-	(4.0)	(6.5)	(7.0)	-	-	(18.4)
1931	242,210	77,575	65,084	16,736	10,872	14,284	10,730	7,332	-	-	39,597
	(100.0)	(32.0)	(26.9)	(6.9)	(4.5)	(5.9)	(4.4)	(3.0)	-	-	(16.3)
1939	297,042	88,477	57,919	29,894	13,614	24,951	17,633	6,544	761	1,136	56,113
	(100.0)	(29.7)	(19.5)	(10.1)	(4.6)	(8.4)	(5.9)	(2.2)	(0.3)	(0.4)	(18.9)
1943	245,209	65,949	47,980	29,419	17,666	20,084	18,093	6,734	3,563	2,727	32,994
	(100.0)	(26.9)	(19.6)	(12.0)	(7.2)	(8.2)	(7.4)	(2.7)	(1.5)	(1.1)	(13.5)

자료: 현규환(1967) 251, 박경수(1987) 56, 吉林省 延邊行政督察專員公署建設科(1943), 延邊地區農業 關係統計表.

에 있었던 일본의 수요에 따라 통제되고 착취되는 전형적인 주변지역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2) 공업의 주변지역화

간도협약 이전에 연변지역으로 이주한 중국인과 조선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민들이었다. 때문에 당시 연변지역에는 삼림자원을 비롯한 부존자원이 풍부함에도 근대적인 공업이 일어날 수 없었으며, 다만 농업과 밀접히 관련된 일부 수공업이 행해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세계체제에 편입된 후, 일제에 의해 철도와 같은 근대적 교통망이 건설·확충되고, 이어서 연변지역의 삼림자원과 광물자원 및 농산물자원을 침탈하기 위한 일본의 자본이 본격 침투됨으로써 연변지역에도 자원의존형 공업이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일제 말(1940년)에 연변지역에는 삼림공업, 제지공업, 섬유합판공업, 광공업(광물 채굴업), 양주(釀酒)업, 제분(製粉)업, 착유(榨油)업 등의 다양한 공업이 나타나게 되는데, 삼림공업이 공업 총생산액의 62%를 집할 만큼 특화되어 있었고, 제지공업 14.3%, 광공업 8.0%, 양주업·제분업·착유업 등의 식료품 공업 5.9%, 기타 공업 9.8%였다(김규방 외, 1990, 64-65).

삼림공업은 1916년 일제가 길림성과 체결한 '길흑임광차관조약(吉黑林鑛借款條約)'을 통해 이 지역에서 일본인의 임장권(林場權)이 부여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이에 따라 대창조합(大倉組合), 왕자제지(王子製紙), 삼정물산(三井物産), 삼능(三菱) 등의 일본 기업들이 연변지역에 목재회사를 설립하고 원목 벌채사업에 뛰어들게 되는데, 한때는 일본 목재상이 105호에 달하여 길림성 목재상 총수의 70%를 점하기도 하였다. 만주사변 이후 일제는 삼림철도를 건설하고 임업기구와 목재 비축장, 제재공장 등을 설립하여서 삼림자원의 개발과 수탈을 보다 노골화한다. 만주국 설립 후 일제가 통치한 14년간 연변지역에서 수탈해간 목재만 해도 무려 3,000만^m에 달하였다(延邊朝鮮族自治州林業管理局林業志編纂委員會 編, 1990, 3). 일제는 원목 약탈에 주력하는 한편 더욱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개산툰과 석천 등에 대형 펄프공장과 섬유합판공장을 설립하였다. 그로 인해 당시 연변지역의 종이 생산량은 동북지역(만주)의 58%를 점

하고, 섬유합판 생산량은 17.8%를 점하게 된다(김규방 외, 1990, 66).

광공업부문에는 금, 인, 동, 석탄 등 광물 채굴업이 발달하였다. 1941년 연변지역의 황금생산량은 195kg에 이르렀고, 1941년에서 1944년 사이에 동(구리) 생산량은 523톤에 달하였는데(김규방 외, 1990, 67), 모든 생산량은 일제의 전쟁수요에 공급되었다.

한편 유기(鑪器)공업, 단야(鍛冶)공업(대장간), 도자기업 등과 같은 민족의 전통 공업은 일본의 대체 상품이 수입됨에 따라 점점 위축되어 갔다(현규환, 1967, 340-341). 이에 비해 전통적인 정미업은 조선인에 의한 미곡 생산량의 급증과 일본으로의 수출 확대에 오히려 성장세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일제시기 연변지역의 공업은 일본의 자본에 의한 현지 자원(목재, 광산물) 수탈형 공업으로서, 높은 수준의 기술보다는 현지의 풍부한 자원과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는 원료제품 생산 위주의 공업이었다. 따라서 당시 연변지역의 공업은 일제에 의해 자원이 수탈당하고 착취당하는 주변지역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사회주의시기 연변자치주의 지역성

1) 세계체제로부터 이탈

8.15 해방 이후 중국은 해방전쟁과 토지혁명을 겪으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하여, 1949년 사회주의 혁명을 표방한 중화인민공화국 시대가 열림으로써 완전히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 내 부분지역인 연변지역도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 이탈하게 되는데, 당시 냉전체제로 인한 국제적 환경은 연변지역의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국전쟁 이후, 중국 정부는 미국 세력이 미치고 있는 한반도와 인접한 연변지역을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으로 인정하였으며, 1960~70년대 소련과의 적대 시기에는 소련과 인접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전쟁 후에 다시 건설'하는 지역으로 인식하였다(이동욱, 1996, 34). 이러한 이유로 연변지역은 국가의 경제건설정책에서 소외되는 지역으로 전락한다. 비록 인접한 북한과는 혈맹관계에 있었다고 하지만 명분상의 혈맹이

지 경제적 차원에서는 각각 자력갱생정책을 펴고 있어서 상호 교류가 적었다. 그리고 한국과는 6.25 전쟁 이후 적대관계에 처하게 되어 약 반세기 동안 일체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냉전체제로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 금수(禁輸)조치를 취함에 따라 중국은 건국 초기부터 사회주의 생산양식에 기초한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경제건설노선을 견지하게 된다(宋才發, 1997, 138).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각 지역(성, 현 등)들도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각 지역의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과 자연환경을 무시한 채, 천편 일률적으로 공업에서는 ‘오소공업(五小工業)(소형 강철기업, 소형 화학비료공업, 소형 기계공업, 소형 시멘트공업, 소형 탄광업)의 발전을 통한 이강위강(以鋼爲綱)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에서는 식량 생산만을 중시하는 이양위강(以糧爲綱) 정책을 실시하였다(陸大道, 1990, 24-25). 이에 따라 사회주의 시기에는 연변지역도 중국 정부의 사회주의 자립경제 건설정책을 따라 모든 산업 활동에서 사회주의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2) 산업의 지역성

(1) 농업의 사회주의화

건국 당시 연변지역의 농업은 종사자가 전체 산업인구의 66.6%를 점할 만큼(延邊50年編輯委員會編, 1999, 134.) 가장 중심산업이었다. 사회주의 시기에는 세계체제로부터의 이탈로 세계시장(대외교역)을 통한 농업과 경제의 발전은 기대할 수도 없었다. 이 시기 연변지역의 농업도 사회주의적 자립경제 건설방식에 따라 이루어 질수 밖에 없었다.

연변지역은 중국의 여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일찍 해방된 곳으로서 1948년에 이미 토지개혁운동이 계속되었다. 그 결과 일제시기에 지주, 관료, 일본인,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이 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경작 토지는 그 대부분(전체 경작지의 81.72%, 182,064ha)이 다시 경작농민에게 분배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농업의 생산성이 대폭 증가하기도 하였다(延邊朝鮮族自治州地方志編纂委員會編, 1996, 58). 그러나 1949년에 등장한 사회주의 국가 중국은 건국 초부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본격화한다. 1958년부터는 농업에 있어서 생산수단의

표 2.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주요 농작물 재배면적

(단위: ha, %)

연도	벼	밀	서류	옥수수	수수	조	콩	기타	합계
1949	29,448 (11.7)	3,656 (1.5)	14,276 (5.7)	50,503 (20.0)	12,577 (5.0)	48,404 (19.3)	54,925 (21.6)	38,095 (15.2)	251,884 (100.0)
1952	36,116 (15.4)	8,346 (3.6)	10,288 (4.4)	31,979 (13.7)	8,760 (3.8)	46,559 (19.8)	67,917 (28.9)	24,303 (10.4)	234,268 (100.0)
1957	51,284 (22.4)	7,173 (3.2)	12,254 (5.4)	26,524 (11.6)	3,104 (1.4)	38,092 (16.6)	63,809 (27.9)	26,307 (11.6)	228,547 (100.0)
1962	32,334 (13.5)	7,569 (3.2)	9,093 (3.8)	35,058 (14.7)	8,586 (3.6)	39,788 (16.6)	85,482 (35.6)	21,498 (9.0)	239,408 (100.0)
1965	38,570 (16.0)	7,238 (3.1)	9,008 (3.8)	37,414 (15.5)	6,167 (2.6)	50,433 (21.0)	77,065 (32.1)	14,059 (5.9)	239,954 (100.0)
1970	46,660 (19.0)	13,473 (5.5)	8,593 (3.5)	34,994 (14.2)	3,953 (1.6)	47,807 (19.3)	76,394 (30.9)	14,800 (6.0)	246,674 (100.0)
1975	46,284 (19.7)	12,892 (5.6)	5,186 (2.3)	67,210 (28.6)	1,692 (0.8)	31,239 (13.4)	61,859 (26.3)	7,580 (3.3)	233,942 (100.0)
1980	47,318 (20.4)	16,501 (7.1)	7,036 (3.0)	44,405 (19.2)	1,715 (0.7)	30,841 (13.3)	76,218 (33.0)	7,558 (3.3)	231,592 (100.0)
1984	50,628 (22.8)	19,347 (8.7)	6,085 (2.7)	55,590 (25.2)	282 (0.1)	18,242 (8.2)	64,535 (29.1)	7,037 (3.2)	221,746 (100.0)

자료: 延邊50年編輯委員會(1999) 241-244.

집체소유와 집단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공사화 운동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연변지역의 농경지도 소유관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전체 농지의 거의 대부분(85.75%)은 인민공사 집단 소유지가 되었고, 나머지는 사유지(스스로 지배할 수 있는 농경지) 6.75%, 국영농장 2.18%, 기타 기관단체 경작지 5.32% 등으로 바뀌었다(추영춘, 1982, 59-60).

이와 같은 집단생산체제로의 전환은 농업생산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과 개입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연변과 같은 각 지역단위에서의 농업도 중국정부의 식량 자립 정책에 맞춰져 식량 증산을 위한 농작물 재배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에 있어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주요 농작물의 재배면적 변화(표 2)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1949년에서 1984년 사이에 식량작물의 재배면적은 전체 경작지의 84.8%에서 96.8%로 높아지고, 특용작물(담배, 아마 등)과 같은 기타의 면적은 15.2%에서 3.2%로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식량작물 중에서도 수요와 생산성이 낮은 조, 수수, 서류(감자)의 재배면적은 크게 감소한 반면, 벼, 밀, 콩, 옥수수와 같은 주요 식량작물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벼의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벼의 재배면적 증가도 식량증산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연변지역은 벼 재배경험이 풍부한 조선족이 집중되어 있어 벼 증산정책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지역인데다, 벼가 단위면적당 수확고가 가장 높은 작물이어서 식량증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벼의 재배면적 확장정책을 선택한 것이다(김규방 외, 1990, 127).

요컨대 사회주의시기에 연변지역의 농업은 일제 시기처럼 여전히 가장 중심적인 산업이기는 하지만, 농업 생산양식의 전환으로 이전 시기에 비해 그 성격이 매우 달라진다. 농업생산체제가 사회주의적인 집단생산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재배 농작물도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식량자립과 증산정책(이양위강 정책)에 따라 주요 식량작물(벼, 밀, 콩, 옥수수)위주로 재편되었다는 것이다.

(2) 공업의 사회주의화

건국 초 연변지역의 공업은 과거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의 영향으로 원료와 1차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삼림공업, 펄프, 비철금속, 석탄채굴 등과 같은 몇 개의 부문만 발달해 있었다. 그러나 건국 후 중국정부는 사회주의적 자립경제 실현을 위해 특히 대약진(大躍進)운동의 원년인 1958년부터는 공업 부문에서 5 소공업(小工業) 건설정책을 강력히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각 지역수준에서도 다섯가지 공업(강철(제철), 기계, 화학비료, 시멘트, 탄광업) 육성에 나서는데, 연변지역에서도 이에 따라 공업의 성격 변화가 발생한다.

대약진운동이 시작될 무렵인 1957년부터 1984년까지의 시기에 연변의 공업부문 종사자수의 변화에 의하면(표 3 참조), 각 공업부문 중 제조업 종사자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동기간에 각 공업부문별 종사자수의 구성비에서 제조업은 30.3%에서 53.7%로 급증한 반면, 채굴업(광산업)과 다른 부문은 크게 감소하거나 별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은 제조업의 성장은

표 3. 연변자치주의 공업부문 종사자수의 변화 (단위: 명, %)

연도	채굴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공급업	건축업	전 공업
1952	13,893(30.0)	32,176(69.4)	240(0.6)	-	46,309(100.0)
1957	25,904(58.6)	13,369(30.3)	580(1.4)	4,273(9.7)	44,126(100.0)
1962	51,676(60.5)	24,260(28.4)	1,162(1.4)	8,289(9.7)	85,387(100.0)
1965	45,346(59.1)	21,271(27.7)	1,254(1.7)	8,811(11.5)	76,682(100.0)
1970	50,599(52.0)	36,366(37.4)	1,805(1.9)	8,458(8.7)	97,228(100.0)
1975	81,930(46.5)	78,479(44.6)	2,840(1.7)	12,545(7.2)	175,794(100.0)
1980	85,722(33.7)	142,337(55.9)	3,021(1.2)	23,456(9.2)	254,536(100.0)
1984	106,853(34.3)	167,013(53.7)	3,472(1.1)	33,982(10.9)	311,320(100.0)

자료: 延邊50年編輯委員會 編(1999) 136.

각 지역별 자립적 공업체제 확립을 위한 중국정부의 5소공업 건설정책으로 인하여 기존 제조업 외에 강철, 화학비료, 기계, 시멘트와 같은 제조업이 육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제조업의 구조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일제시기에는 이른바 자원의존형 공업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이 시기에는 많이 낮아졌다. 공업총생산액 중 삼림공업, 비철금속, 목재가공업, 제지공업과 같은 자원의존형 공업부문의 생산액이 1956년엔 공업 총생산액의 74.5%를 점하였으나(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處 編, 1957, 28), 1972년에는 48.46%로 낮아졌다(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 1974, 82, 136-152). 이러한 구조변화는 물론 5소공업 정책 때문이다.

그러한 공업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도 연변지역의 공업 중 가장 중심적인 부문은 풍부한 삼림자원을 바탕으로 한 삼림공업이었다. 국가에서는 연변지역의 임업자원을 개발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소요되는 대량의 목재를 공급하기 위해 1947년부터 1971년 사이에 왕칭, 대석두(大石頭), 황니하(黃泥河), 팔가자(八家子), 돈화, 화룡, 천교령(天橋嶺), 대흥구(大興溝), 백하(白河) 등 9개소에 길림성 소속 임업국을 설립하였다. 1980년까지 연변지역에서 국가에 공급한 목재는 약 6,469만m³에 달하여 전국의 목재 총생산량의 7.2%를 점하였다. 그 중 길림성 소속 임업기업의 목재생산량은 총생산량의 84.6%를 점하였으며, 주로 연변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수송되었다(延邊朝鮮族自治州志編纂委員

會 編, 1996, 794). 이와 같이 연변의 대표적인 자원 기반산업인 삼림공업은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으며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소요되는 기본원료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사실만 때어서 보면, 연변지역은 당시 중국의 국가경제 내에서 주변지역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연변지역의 공업에서 또 다른 큰 변화는 기업의 소유형태가 국가 소유의 국영기업 위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표 4 참조). 약간의 집체기업과 향촌기업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본질적으로는 국영기업과 다름없다. 국영기업 중에서도 국가에서 직접 통제하는 중앙의 국영기업이 공업 생산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1955년 연변지역 114개 기업 중 중앙 국영기업은 22개인데 생산액은 14,633.6만원으로서 공업 총생산액의 82.7%를 차지하였다(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處 編, 1957, 23). 이러한 소유형태 때문에 이 시기에는 연변지역의 공업 생산이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서 사회주의 방식으로 이루어 질수 밖에 없었다.

4. 개혁개방 이후시기 연변자치주의 지역성

1) 세계체제로의 재편입

건국 후 중국은 일관되게 사회주의 자립경제건설에 매진하지만 1970년대부터 중국 경제는 사회주의생산체제의 한계 외에 국가안보를 위한 중화

표 4. 연변자치주의 기업소유형태별 공업생산액 비중

(단위: %)

연 도	국영기업	집체기업	향촌기업	기 타	총생산액
1949	88.9	11.1	-	-	100.0
1952	92.3	7.7	-	-	100.0
1957	91.9	8.1	-	-	100.0
1962	93.2	6.8	-	-	100.0
1965	93.3	6.7	-	-	100.0
1970	91.7	8.3	-	-	100.0
1975	85.3	14.7	1.6	-	100.0
1980	80.2	19.5	3.7	0.6	100.0
1984	76.4	20.4	3.5	3.1	100.0

주: 기타에는 사영기업과 개체기업 등이 포함되었음.
 자료: 延邊50年編委會 編(1999) 269.

학공업의 집중 투자와 ‘삼선건설(三線建設)’전략,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등과 같은 추진정책들의 오류와 폐해로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에 비해 일찍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편입된 이웃한 일본과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그 동안에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큼 경제적 지위와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된다.

이와 같은 중국의 경제상황과 대비되는 주변 환경은 중국으로 하여금 사회주의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개혁 추진이 불가피하도록 하였다. 이에 중국은 1978년 12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중앙 집중권력의 지방 이양, 기업의 경영권 보장, 경제법칙에 의한 경제개혁 실시, 대외경제교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개방정책을 채택·선언함으로써(王成福·高廣濶, 1999, 1-2),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세계시장에 다시 편입하게 된다.

중국정부는 자국 경제의 발전문제를 외국의 투자유치와 세계시장과의 무역 확대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중국정부는 1979년에 ‘외국인합작투자법’ 등의 제정과 함께 ‘경제특구’를 설치할 결정을 하였고, 그 다음 해에 동남 연해에 위치한 심천(深川), 주해(珠海), 산두(汕頭), 하문(廈門)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외국에 개방하였으며, 1984년에는 상해, 광주, 칭도, 천진, 대련 등을 포함한 연해(沿海) 14개 도시를 ‘연해개방도시’로, 1985년에는 장강(長江), 주강(珠江), 민강(閩江) 3개 삼각주를 ‘연해경제개방구’로, 1987년에는 산둥 및 요동반도와 환발해(環渤海)지역 전체를 연해경제개방구로, 1988년엔 해남도를 경제특구로 각각 지정하였다. 그리고 1992년부터는 흑룡강, 길림, 요녕, 감숙, 내몽고, 신장, 서장, 운남, 광서와 같은 국경과 인접한 성(省)급 지역을 개방하는 ‘연변(沿邊)개방전략’과 장강, 주강, 황하 등의 주요 하천을 따라 그 주변 내륙지역을 개방하는 ‘연강(沿江) 및 내륙개방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중국의 거의 모든 지역이 세계경제에 편입하게 된다.

한편 연변지역은 지정학적인 이유로 개방이 늦어져 세계체제로의 재편입도 상대적으로 늦게 이루어진다. 연변자치주의 세계체제로의 편입시기에 대해서 1984년 9월 27일에 개최된 연변조선족자치주 제8기 인민대표대회 제11차 회의에서 도시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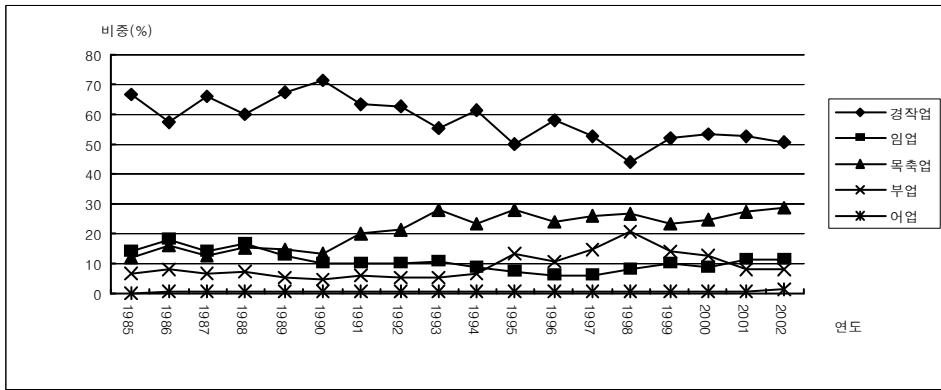
영기업에 대한 소유제 다양화와 외자 유치 등을 강조한 ‘도시경제체제 개혁을 진행할 것에 관한 결의’ 채택과 동년에 이루어진 외자 유치(홍콩에서 7.8만 불 투자)에 의한 최초의 외국합작회사 설립을 근거로, 이 시점을 연변의 세계체제(의 반주변부)로의 재편입시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金石柱, 2003, 56). 하지만 그러한 결의 채택과 상징적인 외자 유치에도 불구하고, 연변지역은 그 지정학적인 특수성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개방조치 지연(1992년 한·중수교, 1992년 길림성 개방과 훈춘시 연변(沿邊)개방도시로 지정)등으로 말미암아 1992년 이전까지는 외국인의 투자와 교류가 극히 미미하였다. 때문에 연변지역의 세계체제로의 재편입 시기는 중국정부에서 공식 개방하고, 또한 그들의 모국인 한국과의 교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2년부터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산업의 지역성

(1) 농업의 주변지역화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과 함께 기존의 인민공사 집단농업생산체제를 혁파하고 국가소유의 토지를 농가에게 임대해줌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려는 가정승포책임제(家庭承包責任制)를 실시하게 되는데, 1984년에 이르러 연변지역도 대부분의 농촌에서 이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984년에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정부에서는 ‘농촌 전문호를 발전시킬 데 관한 10가지 규정’을 제정하여(박경수, 1987, 257), 농민들이 식량생산만을 중시하는 이양위강정책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다각 경영의 길을 택하도록 고무하였다. 게다가 정부는 정부 주도의 가격체계를 시장 주도의 가격체제로 개혁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조치에 따라 농민들이 국가의 통제에 의한 농작물 생산에서 벗어나 시장의 수요에 의해 생산하게 됨으로써, 연변지역의 농업구조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농업구조의 변화는 1985~2002년 사이에 농업의 각 부문별 생산액이 농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그림 VI-1 참조). 그림의 그래프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1990년경부터 경작농업은 그 비중이 70%내외에서 50%대로 감소하였는데 비해, 목축업(축산업)과 부업의 비중



자료: 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 編(2003) 164의 수치를 이용하여 작성.

그림 1. 연변자치주의 농업구조(생산액 기준) 변화

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목축업이 그 동안에 많이 성장한 것은 연변의 농민들이 축산업의 발달에 유리한 자연환경(내대성 기후, 넓은 면적의 산과 구릉지 등)과 가축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옥수수, 콩과 같은 농작물이 발달한 농업조건을 활용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축산물의 국내외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는 농업을 해온 결과이다. 목축업은 1997년의 경우 그 생산물의 상품화율(90.0%)이 연변지역의 농업생산물의 평균 상품화율(69.9%)을 훨씬 상회할 만큼 가장 시장지향적인 농업부문이 되고 있다.

부업은 판매용 야생식물 채집 및 재배업을 말하는데, 연변지역은 산지가 많아 야생 특산물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그러나 사회주의시기에는 개인의 경제활동이 금지 되어 풍부한 특산물자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었다. 개혁개방 이후 상품 교환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특산물자원의 시장수요가 증가하여 그 생산량도 증가하였다. 연변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주요 특산물은 산삼(장뇌삼), 오미자,

송이버섯, 김정귀버섯, 홍경천, 고사리 등이다. 이들 특산물은 최근 주요한 수출상품이 되었는데, 수출 지역은 주로 한국과 일본이다(朴承憲, 2001, 118~120).

농업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진 경작농업에서도 내부구조에서 변화가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에서 벼, 옥수수, 콩 등의 식량작물 생산액이 농업 총생산액에서 점하는 비중은 1985년 48.3%이던 것이 1990년대에 들어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 10.7%로 낮아진 반면, 동기간에 특용작물 생산액의 비중은 그 반대로 18.7%에서 34.1%로 증가하여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농민들이 개혁개방 이전 식량생산만을 중요시하던 이양위강정책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상품성이 높은 특용작물 재배를 중요시한 결과이다. 특히 특용작물 중에서도 약재와 담배의 생산액은 제약공업과 담배공업의 비약적인 발전(표 9 참조)에 힘입어 파종면적이 현저히 증가되었다. 개혁개방 이후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약재와 담배의 연평균 재배면적은 각각

표 5. 연변자치주의 식량 및 특용작물 생산액의 비중변화

(단위: 만원 %)

작물	연도	1985	1987	1991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항목													
식량작물	생산액	27,249	27,343	21,679	10,513	49,715	29,132	60,675	47,210	92,415	60,956	95,965	60,407	34,548
	비중	48.3	48.2	27.2	13.8	32.0	17.4	29.0	23.4	32.0	22.3	28.7	17.5	10.7
특용작물	생산액	10,548	10,253	27,085	28,387	32,933	34,731	43,579	42,773	48,025	49,666	75,567	117,405	110,171
	비중	18.7	18.1	34.0	37.3	21.2	20.7	20.9	21.2	16.6	18.2	22.6	33.9	34.1

자료: 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農業局(1988) 20-25, 延邊統計局(1998) 178; 延邊50年編纂委員會(1999) 228, 延邊統計局(2001) 179, 延邊統計局(2002) 165, 187.

547ha와 7,176ha에 지나지 않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각각 2,198ha와 12,444ha로 크게 증가되었다(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 編, 2001, 192-193).

개혁개방 이후 연변지역의 농업은 시장경제의 도입에 힘입어 사회주의시기의 전통적인 식량작물 생산 위주에서 벗어나 다각화와 상업화가 진전되었다. 그래서 일부 농산물은 유리한 자연조건과 저임금 노동력 덕분에 국제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한국, 일본 등 인근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요컨대 개혁개방이후 연변의 농업은 세계체제론적 관점에서 보면, 세계경제 또는 세계(농산물) 시장에서 주변적인 분업 활동과 지위를 담당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2) 공업의 주변지역화

연변지역의 공업도 중국경제의 세계체제로의 편입에 따른 일련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1984년 9월에 개최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에서 기업 소유권의 다양화를 인정하는 개혁을 결의함에 따라 기업의 소유형태에서 급속한 전환이 나타났다(표 6 참조). 1979년에는 연변지역의 공업생산이 국영기업(81.7%)과 집체기업(18.3%)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사영기업, 개체기업, 주식형 기업, 외자기업 등과 같은 새로운 소유형태의 기업이 급속히 증가되어 2002년에는 이러한 시장경제형 기업이 공업 총생산액의 71.0%를 점하게 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 중 외자기업에 관한 것은 연변지역의 공업이 세계경제체제에 어떤 분업적 역할을 하며 편입돼 있는가를 파악해 볼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연변지역은 1984년부터 외자유치

시책을 시행하지만, 그것이 본격화된 것은 중앙정부가 길림성을 개방한 1992년 이후이다. 연변자치주 정부는 동년부터 외자기업유치를 목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허가와 각종 우대혜택을 보장해주는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인 훈춘국경경제개발구의 조성사업 외에 성급 개발구인 연길경제개발구, 돈화경제개발구, 도문경제개발구, 안도장백산관광경제개발구 등을 지정하고(中國國際工程諮詢公司, 1996, 10),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외국기업 유치에 불리한 입지조건으로 인해 투자실적은 저조하였다. 2002년 말 현재 연변지역 공업총생산액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3%밖에 되지 않고 있다.

표 6. 연변자치주의 기업 소유별 공업총생산액 비중 (단위: %)

연도	국영기업	집체기업	기타	합계
1979	81.7	18.3	-	100.0
1980	80.2	19.5	0.3	100.0
1985	72.7	20.9	6.4	100.0
1990	70.5	19.5	10.0	100.0
1995	56.3	13.2	30.5	100.0
2000	28.7	8.5	62.8	100.0
2002	22.8	6.2	71.0	100.0

주: 기타에는 사영기업, 개체기업, 주식형 기업, 외자기업 등이 포함됨.
 자료: 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2003) 201.

연변지역에 외자기업 유치는 1984년 홍콩에서 7.8만 달러를 투자하여 설립한 길림대화아마유한공사(吉林大華亞麻有限公社)로부터 시작되었으나(延邊

표 7. 연변자치주 외자기업의 국가별 분포(2000)

항목 \ 국가	한국	일본	홍콩	미국	대만	태국
실제투자기업체수 누계 (개)	409 (66.2)	59 (9.5)	55 (8.9)	26 (4.2)	21 (3.3)	1 (0.1)
계약투자액 누계 (만 달러)	36,832 (58.5)	8,306 (13.2)	8,532 (13.5)	1,426 (2.3)	2,285 (3.6)	2,993 (4.7)
실제투자액 누계 (만 달러)	31,341 (62.4)	8,063 (16.1)	6,650 (13.2)	1,410 (2.8)	1,375 (2.7)	2,993 (6.0)

자료: 延邊朝鮮族自治州對外經濟貿易合作局 제공. ()안은 %

50年編纂委員會, 1999, 6), 중앙정부의 이 지역에 대한 개방조치 지연과 열악한 투자환경 등으로 1991년 까지 실적은 극히 저조하였다. 1992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고 같은 해에 훈춘시가 연변(沿邊)개방도시로 지정된 이후부터 외국투자가 꾸준히 늘어나, 2002년 말까지 계약을 체결한 외자기업체수와 금액은 각각 1,683개와 11억3,285만 달러에 달하였지만,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5억9,247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 2003, 272).

연변에 투자한 외자기기업의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표 7 참조), 2000년 말 현재 한국의 기업은 409개로서 총 외자기업체수(618개)의 66.2%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금액(3억 1,341만 달러)에서도 62.4%를 점유하고 있을 만큼 한국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연변지역이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한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유리한 입지조건 즉, 한국어를 사용하는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것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연변자치주 외자기기업의 투자부문(2000년)

항목 \ 부문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기업체수 누계 (개)	36 (5.8)	464 (75.0)	118 (19.2)	618 (100.0)
계약투자액 누계 (만 달러)	5,054 (8.0)	43,660 (69.4)	14,240 (22.6)	62,954 (100.0)
실제투자액 누계 (만 달러)	483 (0.1)	38,884 (77.3)	10,846 (21.6)	50,213 (100.0)

자료: 延邊朝鮮族自治州對外經濟貿易合作局 제공.
()안은 %

한편 연변에 진출한 외자기기업의 대부분은 기업체 수에서나 투자금액에서도 제조업 부문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표 8 참조). 그리고 제조

업 중에서 외자기기업은 주로 의복, 방직, 식료품(특히 쇠고기·돼지고기 통조림), 가구, 화학원료 및 제품, 건축자재 등과 같이 노동 집약적이거나 원료 지향적 업종에 투자하고 있다(金石柱, 2003, 116). 예를 들면 2000년의 연변지역의 수출상품 중 의복이 집하는 비중은 30%로 가장 높은데, 이는 주로 갑을방직, 쌍방울 등과 같은 한국기업의 제품생산에 기인한 것이다(朴承憲, 2001, 108). 이러한 사실은 한국기업들의 연변지역에 대한 투자 목적이 저렴한 노동력과 원료 활용에 있음을 잘 암시해주고 있다.

개혁개방이후 연변의 공업은 양적 성장과 더불어 업종의 구조변화도 나타났다. 1980년에 연변지역의 공업은 현지의 풍부한 삼림자원을 이용한 삼림(목재), 화학섬유(중이펄프), 제지 등 목재 및 제지공업이 총생산액의 46.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식품과 화학업종 등이 비교적 발달하였다. 이에 비해 2002년에는 공업 총생산액이 약 10배 증가하고 업종도 다소 다변화됨으로써 목재 및 제지공업의 비중은 24.6%로 많이 낮아진다. 그리고 현지에서 많이 생산되는 또 다른 값싼 공업원료와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의약품(한약가공업), 담배, 방직업 등이 발달하게 되어 그 비중이 각각 16.0%, 11.7%, 8.5%로 크게 높아진다(표 9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혁개방이후 연변지역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로의 실질적인 편입이 중국 내 다른 지역에 비해 10여년 늦게 이루어진 데다 외자유치에 불리한 입지조건 등으로 인해, 외국기업의 비율(15.3%)이 중국의 평균(약 50%)에 비해 훨씬 낮으며, 또한 현지의 값싼 공업원료와 저임금·저기술 노동력을 활용하는 공업이 주로 발달하게 된다. 따라서 연변지역은 세계체제 관점에서 보면, 공업에 있어서 주변적인 분업 역할을

표 9. 연변자치주의 주요 공업업종의 생산액과 비중

(단위: 만 원, %)

	의약	삼림	담배	방직	제지	식품	화학	건축자재	비철금속가공	화학섬유	석유정제	석탄	총생산액
1980	-	31,165 (26.7)	1,431 (1.2)	4,492 (3.9)	11,609 (10.0)	10,062 (8.7)	7,194 (6.2)	3,033 (2.6)	-	10,872 (9.4)	-	3,971 (3.3)	116,020 (100.0)
2002	178,278 (16.0)	156,415 (14.1)	130,143 (11.7)	94,007 (8.5)	89,749 (8.1)	52,408 (4.3)	39,990 (3.6)	34,760 (3.1)	31,607 (2.8)	27,421 (2.4)	13,604 (1.2)	21,217 (1.2)	1,111,412 (100.0)

자료: 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1991) 58-60, 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2003) 218.

수행하는 즉, 주변지역적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국 내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에 처음 편입된 이래 오늘날까지 세계체제 속에서의 노동의 분업적 지역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농업과 공업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하였다.

연변자치주는 중국이 세계체제에 처음으로 편입되기 시작하는 시점(1842년 남경조약)보다 57년이나 늦은 1909년(간도조약)부터 일제에 의해 강제로 편입하게 된다. 1949년에 중국이 사회주의를 사회체제 이데올로기로 채택함에 따라 세계체제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개혁개방이후 다시 세계체제에 편입하게 된다. 따라서 연변자치주의 지역성은 일제시기(1909~1949), 사회주의시기(1949~1978), 개혁개방이후시기(1978~현재)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일제시기에 연변자치주는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에 의해 세계체제에 편입하게 됨에 따라 농업과 공업에서 주변(periphery)적 지역성이 형성되게 되었다. 농업은 토지와 재배농작물이 일제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그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 농작물(쌀, 콩, 담배 등)을 생산·공급하는 전형적인 주변지역으로 전락하였고, 공업에서도 일제의 자본에 의해 현지의 풍부한 자원(특히 삼림자원과 지하자원)과 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삼림(목재 생산)공업을 비롯하여 제지공업과 광공업(광산물 채굴업)이 발달되고, 그 생산품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전형적인 주변지역이 되었다.

사회주의시기에 연변자치주는 1949년에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분업 구조로부터 이탈하여 사회주의적 자립경제 건설노선에 따라 산업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 시기에 연변의 농업은 사회주의적 집단생산체제로 전환되었으며 국가의 식량자급과 증산정책에 따라 벼, 밀, 콩, 옥수수 등과 같은 주요 식량작물 재배면적이 크게 확대되었다. 공업에서도 국가의 5소공업 건설정책을 추종하여 연변의 자원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지역공업, 즉 삼림 및 관련공업의 비중은 낮아지고, 5소공업(강철, 기계, 화학비료,

시멘트, 탄광업)부문이 새로이 등장하거나 발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개혁개방이후 시기에 중국은 연해지역을 필두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다시 편입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연변자치주는 인접국가와의 접경지역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외개방조치가 1992년에 이르러 단행됨에 따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체제에 재편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변의 농업활동에서도 과거의 주요 식량작물 재배비중이 1990년대부터 많이 낮아지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내의 시장에 저가로 수출하는 축산물과 특용작물(인삼, 한약재, 담배 등)의 생산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형태로 변모되어 주변적 지역성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공업도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다. 그러나 연변의 공업은 세계체제에 편입이 늦어진 데다 외자유치에 불리한 입지조건 등으로 중국의 다른 개방지역에 비해 외국기업의 투자실적이 매우 적은 가운데 목재 및 제지, 의약(한약재 가공), 담배, 섬유공업 등과 같이 현지의 값싼 공업원료와 저임금노동력에 기반을 둔 노동집약적 공업이 소규모로 발달하게 된다. 요컨대 연변지역은 공업에서도 세계경제에서 주변지역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최근에 조선족의 과다유출로 해체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연변지역의 세계체제 속에서의 주변지역적 지위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외국의 투자유치와 세계시장과의 교역확대에 유리한 연해(沿海)지역(광둥성, 복건성, 상하이, 절강성, 강소성, 산둥성, 북경시, 천진시, 허북성, 요녕성, 해남성(해남도))에 경제특구, 연해개방도시, 연해경제개방구 등을 우선 지정하고, 경공업 및 수출지향적인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연해지역은 1979년~1996년간 중국 외자도입의 90%이상이 투자되었고 공업생산액(1997년 현재)에선 중부지역(산서성, 내몽고자치구, 길림성, 흑룡강성, 안휘성,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과 서부지역(중경시, 사천성, 귀주성, 서장자치구, 섬서성, 감숙성, 청해성, 영하회족자치구, 신강위글자치구)에 비해 각각 3배와 7.8배 많으며, 1인당 GDP(1998년 현재)에선 각각 1.9배와 2.2배나 많

아 중국에서 가장 산업화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발전되었다(朴貞子, 2001, 87-152). 이는 세계체제론적 시각에 의하면 중국의 동부 연해지역은 세계 경제 속에서 반주변지역으로 역할을 하거나 발전 되었다면, 중부와 서부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아직도 주변지역적 지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연변자치주의 해체설은 이와 같은 중국내 지역 간 발전격차로 인해 주변지역에 속하는 연변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더 좋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서 중국내의 반주변지역(특히 연해지역의 대도시)이나 한국으로 대량이주해감에 따라 조만간 소수민족자치주 설치요건인 조선족비율 30% 이상이 유지될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한 위기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 관점에 의하면 연변자치주의 존속여부는 연변의 세계체제 속에서의 지위 상승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연변자치주와 조선족지도자들은 이것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文獻

고승제, 1973, 한국이민사연구, 장문각.
 김규방 외, 1990, 연변경제사, 연변인민출판사.
 金石柱, 2003, 延邊朝鮮族自治州의 世界體制論的 地域地理, 경북대학교 지리학박사 학위논문.
 박경수, 1987, 연변농업경제사, 연변인민출판사.
 朴貞子, 2001, 中國의 地域開發政策과 地域隔差, 경북대학교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이동욱, 1996, '두만강유역개발'로 지정학적 불리함 극복, 통일한국, 151.
 이수훈, 1999, 세계체제론, 나남.
 이재하, 1994, 테일러의 세계체제론적 지리학, 한국지리연구회 엮음, 현대지리학의 이론가들, 민음사.
 이재하, 1997, 세계화시대에 적실한 지역연구방법론 모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
 이재하·이혜주, 1999, 龜尾의 지역성 변화에 대한 세계체제론적 접근,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1).
 이재하, 2001, 피터 테일러의 세계체제론적 공간분석론, 국토연구원 엮음,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한울.
 추영춘, 1982, 연변조선족자치주경제개론, 연변인민출판사.
 현규환, 1967, 한국유이민사, 어문각.

吉林省延邊行政督察專員公署建設科, 1943, 延邊地區農業關係統計表.
 朴承憲, 2001, 延邊經濟形勢分析與豫測, 延邊大學出版社.
 宋才發, 1997, 社會主義經濟建設歷史經驗研究, 華中師範大學出版社.
 延邊歷史研究所, 1986, 延邊歷史研究(1).
 延邊朝鮮族自治州林業管理局林業志編纂委員會 編, 1990, 延邊林業志.
 延邊朝鮮族自治州地方志編纂委員會 編, 1996, 延邊朝鮮族自治州志, 中華書局.
 王成福·高廣溫, 1998, 改革開放20年重大決策概要, 中國經濟出版社.
 陸大道, 1990, 中國工業布局的理論與實踐, 科學出版社.
 中國國際工程諮詢公司 編, 1996, 中國圖們市江地區開發規劃(1996~2010), 中華書局.
 延邊50年編纂委員會 編, 1999, 延邊50年, 延邊人民出版社.
 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 編, 1957, 1956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匯編.
 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 編, 1974, 延邊朝鮮族自治州經濟統計資料1972年.
 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 編, 1991, 延邊統計摘要(1980~1990).
 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農業局 編, 1988, 延邊朝鮮族自治州農業經濟統計資料.
 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 編, 1998, 延邊統計年鑑1998, 中國統計出版社.
 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 編, 2001, 延邊統計年鑑2001, 延邊人民出版社.
 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 編, 2002, 延邊統計年鑑2002, 延邊人民出版社.
 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 編, 2003, 延邊統計年鑑2003, 吉林人民出版社.
 Bradshaw, M. J., 1990, New regional geography, foreign-area studies and Perestroika, *Area*, 22(4), 315-322.
 Hoekveld, G. A., 1990, Regional geography must adjust to new realities, in R. J. Johnston, J. Hauer and G. A. Hoekveld(eds.), *Regional Geography: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 Prospects*. Routledge, London.
- Taylor, P. J., 1988, World-systems analysis and regional geography, *Professional Geographer*, 40(3), 259-265.
- Taylor, P. J., 1991a, A future for geography, *TERRA*, 103(1), 21-31.
- Taylor, P. J., 1991b, A theory and practice of region: the case of Europ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9(2), 183-195.
- Terlouw, C. P., 1990, Regions of the world system: between the general and the specific, in R.J. Johnston, J. Hauer and G.A. Hoekveld (eds.), *Regional Geography: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Routledge, London.
- Thrift, N. J., 1990, Doing regional geography in a global system: the new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the City of London, and the South East of England, 1984-7, in R.J. Johnston, J. Hauer and G.A. Hoekveld(eds.), *Regional Geography: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Routledge, London.
- Wallerstein, I., 1979,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Wallerstein, I., 1984, *The Politics of the World-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교신 : 이제하(경북대학교 지리학과, leejha@knu.ac.kr)
Correspondence: Lee Jaeha(Dep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eejha@knu.ac.kr)
- (접수 : 2007. 8. 1, 채택 : 2007. 8. 16)